

대중문학 연구의 현황

임 성 래*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1990년대 |
| 2. 1980년대 이전 | 4. 맺는말 |

1. 머리말

이 글은 대중문학 연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일제시대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현재만 살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두 살피는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펼 정도로 이 분야에 밝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가 이미 살핀 바 있어서¹⁾ 그 글에 미루고, 이 글에서는 주로 1990년대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개략적으로만 살펴보려고 한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정한숙, “대중소설론”,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출판부, 1977.
 홍정선, “한국 대중소설의 흐름”, 『문학의시대』 2, 풀빛, 1984.
 조성면, “193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 조성면(편저),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태학사, 199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결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중문학의 개념을 대중들이 오락적 목적으로 읽는 대중소설로 규정한다.²⁾ 이러한 규정에 따라 카프계열 문인들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제외한다. 그리고 논의의 범위를 대중소설의 하위 유형인 추리소설, 연애소설, 과학소설, 무협소설, 역사소설, 신문소설³⁾ 등과 관련된 연구에 한정한다. 요즘 대중문학에 포함시켜 논의되는 분야로 시나리오(연속극 대본 포함)와 사이버문학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 글에서는 제외시킨다.

2. 1980년대 이전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일제시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시대의 논의가 대중문학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면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논의는 그 자체가 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대중문학을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대중문학의 성과를 살핀

2) 대중문학을 대중이 오락적 목적으로 읽는 대중소설로 규정했을 때, 오락적 목적이라는 말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대중이 소설을 읽을 때 그것이 오락적 목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출판한 문학 작품들(특히 소설)이 대체로 오락성, 곧 흥미성을 중시함으로써 상업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렇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서양에서 대중문학 작품은 거의 대부분 포켓판으로 제작되므로 형태상 소위 본격문학과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양과 달리 작품의 외적 특징으로 대중문학을 구별하는 일이 어렵다.

대중문학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중현 외, 『대중문학의 이해』, 청어원, 1999를 볼 것.

3) 신문소설은 대중소설의 하위 유형이 아니라 발표 매체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중소설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글에서는 하위 유형으로 보았다.

경우도 있지만 1970-80년대 들어서 대중문학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시각이 우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여기서는 아주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제 시대

일제시대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1930년대에 김기진을 비롯한 카프 계열에서 시작했다. 김기진의 ‘대중소설론’ 이후 이원조, 이무영, 염상섭, 김동인 등의 논자들이 신문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를 제기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문의 상업화로 인한 소설의 통속화를 우려한 것으로 요약되는데,⁴⁾ 이러한 시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제기된 주요 쟁점들은 대중소설의 성격 규정, 본격소설과의 관계, 신문소설, 역사소설, 탐정소설, 통속소설 등 대중소설의 하위 유형에 관한 것들이었다.⁵⁾

2) 해방후 1980년대까지

이 시기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거나 그 부정적 측면을 살핀 것이 주류를 차지했다. 특히 이 시기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대중문학을 열등한 문학으로 폄하하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주요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글들은 대중문학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글들은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에 관한 것이다.

김영석, 대중문학에 관한 문제들, 『문화』3, 1947.12.

김내성, 대중문학과 본격문학, <경향신문>, 1948.11.9.

이봉래, 대중문학론, 『문학예술』, 1957.3-4.

4)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다. 이들의 글과 구체적 논의는 주1)에 실린 논문을 참고하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조성면의 『한국근대대중소설 비평론』(태학사, 1997)에 실려 있다.

5) 조성면, 앞의 글, 449-450쪽.

4 한국문학논총 제 25 집

김동리, 대중소설과 본격소설 - 그 성격적 차이에 관한 열 가지 문답, 『한국평론』, 1958.5.

조연현, 한국신파소설고, 『현대문학』, 1967.1.

오생근,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무엇인가』(김현,김주현편), 문학과지성사, 1976.

정한숙, 대중소설론,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 출판부, 1977.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 1977, 가을.

김주연(편),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79.

김종철, 상업주의 소설론, 『한국문학의 현단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송승철, 대중과 대중소설, 『문학의시대』 2, 풀빛, 1984.12.

이동하, 한국대중소설의 수준, 『문학의 시대』 2, 풀빛, 1984.12.

홍정선, 한국대중소설의 흐름, 『문학의 시대』 2, 풀빛, 1984. 12.

곽종원, 신문소설과 모랄문제, 『현대공론』, 1954. 9.

김내성, 신문소설의 형식과 본질, 『현대문학』, 1957. 2.

방인근, 추리소설론,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 1958.

이가형, 추리소설, 고발문학의 새 가치설정, 『소설문학』, 1980. 5(창간호).

황종연, 대중문학으로서의 추리소설, 『소설문학』, 1984. 8.

민병덕, 한국근대신문소설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8.

이 시기에 등장한 글들 가운데 첫 번째 글들의 특징은 정한숙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학의 비판적 옹호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 학자들의 대중문학 비판론으로 대별된다.

정한숙은 대중문학을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는 “대중소설론”에서 대중소설 또는 통속소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존재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했다. 그는 순수성과 대중성에 대한 뚜렷한 규명이 없다고 전제하고 대중소설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문소설론과 통속소설론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중소설은 1930년대 신문사의 상업주의와 손잡고 많은 독자의

인기를 집중시킬 수 있는 신문소설이 속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김말봉의 <짚레꽃>, 박계주의 <순애보>, 김내성의 <청춘극장>, 정비석의 <자유부인> 등이 독자의 인기를 독차지한 작품이었으나 대중소설이란 낙인이 찍혀 평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대중소설론은 김기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대중소설을 목적론적으로 귀착시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문소설의 비판론을 비판하면서 소설은 대중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소설은 순수소설의 대립개념이 아니라면서 김말봉의 <짚레꽃>과 최득견의 <송방비곡>,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실낙원의 별>, 박계주의 <순애보>,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살피고, 이 작품들이 구성에 문제가 있으나 독자를 확보한 점을 성과로 보았다.

이에 비해 김종철의 “상업주의 소설론”이나 송승철의 “대중과 대중소설”은 대중소설의 병폐를 지적한 글이다. 김종철은 상업주의 소설의 등장을 정치적 암울기에 언론의 상업주의적 경향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최인호와 박법신, 김홍신의 작품을 그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업주의 소설의 해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부도덕성과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철은 대중문학을 비판하면서 대중소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직접 생산자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언제나 왜소한 존재였으며 동시에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온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의 가치를 깨닫고, 동시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 진정한 자기성위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 했다.

아마도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 정한숙의 견해와 김종철·송승철의 견해 두 가지가 대중문학에 대한 학계의 대표적 견해일 것이다.

두 번째로 소개한 글은 주로 추리소설과 신문소설에 관한 것인데, 추리소설에 관한 글이 많은 것은 김내성이 추리소설을 쓴 이후 1980년대에 한국추리작가협회가 결성되고, 그 협회에 참여한 분들이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3. 1990년대

1990년대는 대중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중문

학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시각과 가치 중립을 표방하거나 옹호하는 시각이 혼재하는 1980년대를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대중문학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 줄을 이어 등장하는 등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앞 시기와는 달리 대학에서 대중문학이 학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들어 대중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에 대중문학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고,⁶⁾ 문예지에서 대중문학을 특집으로 다루는 가하면⁷⁾ 대중문학연구회가 결성되고(1993년), 대중문학에 관한 이론서나 외국의 이론들이 번역 소개되기도 한다.

대중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이론서들이 필요한데, 이 무렵에 이와 관련된 서적들이 출간되기 시작한다. 곧 추리소설 분야에서는 이상우의 『이상우의 추리소설탐험』(한길사, 1991)이 간행된다. 과학소설 분야에서는 문예지 『외국문학』(열음사)이 1991년 봄호와 1996년 겨울호에 과학소설을 특집으로 다루고, 1992년에 박상준이 『멋진 신세계』(현대정보문화사)란 책을 통해서 과학소설의 흐름을 소개하며, 1993년에는 김정수와 박오복이 로버트 스콜즈와 에릭 라프킨의 과학소설을 『SF의 이해』(평민사)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1994년에는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의 수퍼맨』(열린책들)이 김운찬에 의해 번역 소개된다. 1997년에는 조성면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중문학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여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태학사)을 엮어냄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한다.

이 시기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대중문학연구회의 활동이다. 대중문학연구회는 1993년에 결성된 이래 1995년에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1996년에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1997년에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1998년에

6) 1991년 1학기부터 순천대학교에 <대중문학론> 강좌가 개설된 이래 연세대, 서울여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대중문학 관련 강좌가 개설된다.

7) 1991년 『외국문학』 봄호에서 과학소설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1993년 10월에 『문학정신』에서 “대중문학, 두 개의 얼굴”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특집은 그 후에 몇몇 문예지에서 계속된다.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를 간행함으로써 대중문학 연구에 활력소 역할을 한다. 또한 대중문학에 관심을 가진 회원을 결집시킴으로써 대중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한편 대중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학위 논문을 쓰는 일이 이 시기에 본격화한다. 이 무렵에 여러 대학에서 대중문학을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여럿 나왔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⁸⁾

- 김강호,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4.6.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 -『찔레꽃』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4.
 김영찬,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 연구-『찔레꽃』과 『순애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5.
 박취중,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95.
 오미남, 1930년대 후반기 통속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5.
 정동보, 청대협소설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5.2.
 이종호, 1930년대 통속소설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96.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6.
 추은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7.8.
 이경준, 1930년대 대중소설 연구-김말봉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2.
 김제국, 한국현대소설의 대체적 상상력 연구-사이버소설을 중심으로-, 청주대 박사논문, 1998.8.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 상명대 박사논문, 1999.2.
 조성면, 한국근대 탐정소설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1999.2.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1999. 6.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99.7.

8) 여기에서는 필자가 접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므로 많은 논문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학위논문들 가운데 상당수가 193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15편 가운데 9편), 1970년대의 대중소설을 다룬 논문이 2편, 50년대 신문소설 연구가 1편, 무협소설 연구가 1편, 사이버소설 연구가 1편, 추리소설 연구가 1편 있다. 이것은 학위 논문들의 다수가 1930년대에 활발하게 창작된 신문소설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신문소설이 갖는 대중성에 착안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논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기존의 대중소설을 보는 관점, 곧 대중소설은 통속소설이라는 관점에 의존하여 작품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연구 시각은 1930년대 소설들이 통속소설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이 시기의 소설이 대체로 신문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소설론의 분석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는 위에 소개한 학위 논문 가운데 두 편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다.

김강호는 통속소설을 “주로 장편소설로서 사회의 지배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황을 존속시키는 행동방식과 가치규범에 순응하는 대개 도시 소시민의 오락과 긴장해소 그리고 위안과 도피의 성격이 강한 문학이며, 도시적 소시민 다수 대중을 독자층으로 상정하는 근대문학의 저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던 소설 형태이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구조적 특징과 독자의 기대지평을 살폈다. 이 논문은 대중소설의 특징을 독자의 기대와 욕구 충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는 점과, 대중소설을 학위 논문의 대상화함으로써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한숙의 논의를 구체화시키기는 했지만 그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대상으로 다룬 모든 작품이 신문에 연재된 신문소설이었지만 신문소설의 성격과 관련시켜 논의를 펴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강옥희는 1930년대의 대중소설을 논의하면서 대중소설이 융성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피면서, 주제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1) 계몽적 대중소설, 2) 이념적 대중소설, 3) 통속적 대중소설로 나누고 그 유형의 특징을 살피면서 각 작품의 내용을 꼼꼼히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논의는 당시 소설들의 어떤 부분이 대중소설의 특징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해당 작품들의 일부 특징을 대중소설적 특징이라고 지적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갖는 대중소설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의 특징은 1970년대 대중소설과 무협소설, 신문소설, 사이버소설, 추리소설로 관심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에 대한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문소설을 살펴보자. 신문소설과 관련된 논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원영, 『한국개화기신문연재소설연구』, 일지사, 1990.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6.

한원영, 『신문연재소설연구』, 이회, 1996.

김창식, 신문소설의 대중성과 즐거움의 정체, 『오늘의 문예비평』, 1997. 봄.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1999.6.

신문소설에 관한 논의는 아직 서지적 정리가 부족하고 신문소설의 특성을 밝히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광운과 한원영의 연구는 신문소설을 서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신문소설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명환의 연구는 신문소설론의 시각보다는 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독자반응을 간략히 살피고, 그 유형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통속적 특성을 모방(반복)성, 선정성, 도식성, 감상성으로 파악했다. 그의 연구는 신문소설론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식은 신문소설의 틀을 문화론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작품

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른 신문소설 연구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소설이 그와 같은 문화 해석의 논리적 틀로 해석될 수 있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지나치게 문화론적 해석에 치중함으로써 문학 연구의 본류에서 벗어난 감이 있다.

김동윤의 글은 1950년대의 신문소설을 살핀 글로, 신문소설의 특징 가운데 시사성과 독자의 반응에 주목하였다. 그는 신문소설이 갖는 속성을 당시의 문화와 관련하여 살피고, 신문사의 상업적 요구와 작가의 입장,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34편이나 되는 방대한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각 작품이 당대의 시사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독자의 반응을 높이기 위하여 관능성과 감상성, 야만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분석함으로써 신문소설 연구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신문소설이 갖는 문학적 특징을 자신의 의욕만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추리소설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자. 추리소설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우, 『이상우의 추리소설탐험』, 한길사, 1991.

대중문학연구회(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조성면, 한국근대 탐정소설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1999.2.

추리소설은 국내에 작가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독자층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일찍부터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바 있고, 외국의 추리소설 이론이 소개된 바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본격적 작품론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현역 추리소설 작가인 이상우가 추리소설의 특징과 역사, 유형, 구조, 작법 등 원론을 소개한 책을 냈지만 이후 이렇다할 작품론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대중문학연구회에서 추리소설의 기원과 유형 등의 소개와 우리 나라 추리소설 작품들을 분석하기 시작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했다.⁹⁾ 특히 조성면은 한국추리소설의 개척자인 김내성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대중

소설의 하위 유형에 대한 연구의 본격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추리 소설의 구성원리와 미적 형식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김내성의 작품을 분석한 점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근대성과 접목하여 해석하려는 태도 때문에 작품의 심층적 분석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연애소설에 관한 논의는 생각만큼 이루어진 것이 없다. 대중문학연구회에서 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가 거의 유일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연애소설의 개념을 밝히고, 우리 나라의 대표적 연애소설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연애소설의 특징과 유형 등 연애소설의 원리를 다루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다. 이광수의 <무정>부터 시작된 연애소설의 작품 수나 우리의 근대문학에서 차지하는 연애소설의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연애소설론의 정립과 이에 토대한 작품론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소설에 대한 관심은 『외국문학』이 91년 봄호에서 “SF문학“ 특집을 다루면서 본격화했다. 이 특집은 과학소설의 소개와 몇몇 과학소설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집은 같은 잡지 1996년 겨울호에서도 계속되었다. 복거일이 1992년 『월간중앙』 5월호에 과학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쓴 이후 박상준이 『멋진 신세계』(현대정보문화사, 1992)란 책을 통해 과학소설의 흐름을 번역 소개하였다. 1993년에는 김정수와 박오복이 로버트 스킨즈와 에릭 라포킨의 『SF의 이해』라는 책을 번역 소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 과학소설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문학계에서 과학소설의 창작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과학소설의 창작은 아마추어 문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신에 올리면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평하는 수준이고, 책으로 출간된 작품의 대부분은 외국 과학소설의 번역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협소설은 그 유행과 인기에 비해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김현이 1978년에 “무협소설은 왜 읽히는가 -허무의 부정적 표출-”(『반고비 나그네 길에』, 지식산업사)이라는 글에서 무협소설의 부정적 측면을 살핀 것이 1980년대까지 무협소설에 관한 거의 유일한 논의이다.

9) 물론 이전에 『추리문학』을 발간한 한국추리작가협회의 활동도 있었다. 여기서는 그들의 논의를 다루지 못했다.

다행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치수가 “중국무협소설의 번역소개와 영향”(『중국소설연구회보』 제12호, 1992.11.)이라는 귀중한 글을 썼다. 이 글은 중국 무협소설의 성행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무협소설의 번역 상황 및 한국 무협소설의 등장과 무협시의 창작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동보의 “청대협소설연구”는 비록 청대의 무협소설을 대상으로 했지만 무협소설의 원리를 연구하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점과 무협소설의 이론을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글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창작된 무협소설의 서지적 정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작품론도 나온 것이 없다. 최근 야설록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 가운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역사소설의 시작은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문에 역사 이야기를 연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소설 분야에서는 대중문학적 시각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소설에 관한 논의는 주로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에 토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역사소설에 대한 작품론은 많이 나왔으나 이것 가운데 대중문학론의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사실 역사소설은 소위 본격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인지 또는 대중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중이 역사소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논의를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시각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대중문학적 시각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핀 가운데 소개하지 못한 글로는 김종현 외, 『대중문학의 이해』(청예원, 1999)와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의 수퍼맨』(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1994), 『문학정신』 1993.10월호의 “대중문학, 두 개의 얼굴”이란 특집, 『문학의시대』 제2권(폴빛, 1984)의 “대중소설과 상업소설”이란 특집, 대중문학연구회(편)의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평민사, 1995), 강영희의 “김수현문학과 대중의식의 변증법”(『사상문예운동』, 1990, 가을)이 있다.

4. 맺는 말

우리 나라에서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도 단편적이고, 특정 시기의 일부 작품, 곧 1930년대 신문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그 논의들은 한결 같이 신문소설론의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소위 본격문학론의 시각에서 논의를 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1930년대의 신문소설을 대중문학의 시각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신문소설론의 시각에서 이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그것이 대중소설이든 본격소설이든 그것이 신문소설이라면 신문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문학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학론의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한국문학에 토대한 대중문학론을 정립하는 일이다. 대중문학론의 정립에 토대하여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할 때 한국문학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 예컨대 신문소설과 추리소설, 연애소설, 과학소설, 무협소설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서 이들 장르에 대한 문학론이 정립되고, 이에 토대한 개별 작품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문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기반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대중문학 작품에 대한 서지적 정리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 Glance on the studies of popular literature in Korea

Im Song-Lai

This paper aimed at the glance on the studies of popular literature in Korea. But the bounds are so large to survey all studies that were glanced in 1990's.

Many studies pointed out that popular literature was inferior literature before the 1990's. Especially, socialist scholars of literature blamed the popular works which were immoral and inhumane. But Jong Han-suk insisted that the popular literature had a value giving the interests to readers.

In 1990's, there are interested in the studies of popular literature. In this periods, there are two types of studies, one is that popular literature was damaged the people and society, the other is the opposite opinions.

And many persons were interested in studying of popular literature. Master's and doctoral theses were increased, curriculum for popular literature were opened, and The Society For Popular Literature were associated in Korea. The most important things were that many books about popular literature were published, and were extended the studies on the genres of popular literature.